

『小學』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教育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oral education of childhood in the 『So-Hak』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정덕
원광대학교 가정관리과
강사 송순

Dept. of Home Edu. Dong-Guk

Uni. Pro.: Lee, Chung Duck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 Lec.: Song, Soon

〈목 차〉

I. 序論

II. 本論

II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So-hak』 that is a teaching material book of child education, to apply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So-hak』 and considered the modern significance of children's moral education in the parts of 『Kyoung-sin』.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ructure of 『So-hak』 is two parts of inside and outside, the inside parts are structured four volumes 『Ib-Kyo』, 『Myoung-Ryoon』, 『Kyoung-Sin』, 『Kye-Gyo』 and the outside parts are structured two volumes 『Ka-Eon』, 『Sun-Haing』. The contents are including the explanatory notes everyday life, a saying for self-culture, a loyal subject, dutiful son.

The inside parts proved of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ism, quoting the Confucius Four scripture. The outside parts proved of the example the family words and good deeds.

2. The fundamental spirit of moral education including the part of 『Kyoung-Sin』 is the education of Humanism. It is the education of a moral Principle and

human nature that morality welled up naturally is one's mind. It is significant for the mental education is modern society regarded as the times of moral crisis.

I. 序 論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으로 불리울 만큼 禮節이 밝은 나라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과연 그러한 말이 있었던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의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儒敎的 傳統 질서 속에서 국가 사회의 전반을 통치해오던 조선사회가 무너지면서 밀려들어온 서구사상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價値觀의 혼란에 기인한다.

과거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살펴보면 이는 철저히 儒敎的 土臺위에 성립되었고 유교나 당시인들에게 절대적인 생활규범으로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자연스럽게 禮儀를 존중하고, 人倫道德을 중시하여 도덕과 윤리면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이루어 왔다.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간에 신의를 지키며, 어른을 잘 모시고, 廉恥 있는 행동을 권장하는 등 여러 좋은 도덕적 전통을 가꾸어 왔던 것이다. 사회 전반은 유교적 통치질서 속에서 五倫에 바탕한 도덕적 질서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통치질서는 농경중심의 사회속에서 누구나 마땅히 행해야할 規範으로 당연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친 인간관계에 있어 우리의 先祖들이 지녀온 전통적 도덕규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도덕한 현상들을 볼때 전통도덕 붕괴의 위기를 넘어 도덕부재의 사회가 되어버린 느낌마저 든다.

『小學』이 비록 중국에서 건너온 冊이기는 하지만 朱子의 朱子學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완성이 되었고 양반계급을 中心으로한 교재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회의 지배계급으로서 兩班들이 사회전반에 미

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點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의 一面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아동의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전통 유학 서적이면서 아동교육서인 『小學』을 中心으로 아동의 교육이념과 그 교육내용 속에서 아동의 예절교육을 조명해 봄으로써 『小學』이 가지고 있는 기본예절을 오늘 우리의 아동교육에 접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小學』에 있어서 「敬身篇」은 자신의 몸을 바루는 행동규범으로서 실생활속에서 구체적인 예의법절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규범을 그대로 현재의 생활에 가져다 쓰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 맞지 않지만 그 기본적 정신을 고찰해봄으로써 현대생활에 걸맞는 예의규범을 찾아내는 일은, 現代의 아동을 위한 예절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날 아동기부터 지식일변도로 나아가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도덕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 인간 내면의 교육적 가치를 전통사상에서 찾아 오늘에 새롭게 재현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本 論

1. 童蒙期 禮節敎育의 重要性

전통사회에 있어서 동몽기는 8-14세 까지의 시기로 오늘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 걸친 아동들이 해당되는 시기가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선조들의 관점은 童蒙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에서 含蓄적으로 나타난다.

『周易』에 의하면 蒙은 산기슭을 흐르는 물의 형태를 비유한 것으로 무한한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鄭淳睦도 童蒙과 擊蒙이라는 말의 출

처를 따지면서 “막혔던 것이 터지는 상태”로 이야기한다. 다시말해서 샘에서 흐르는 물은 가날프지만 나중에 큰 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몽도 교육을 잘 받으면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수 있는 인간으로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유점숙, 1991)

따라서 동몽기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발달단계로서 제도적인 교육과 아울러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 교육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규정지어 볼 수 있다.

『小學』을 교재로 이루어진 전통사회 동몽기 아동들의 예절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교육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를 현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中心에 두고 논의를 전개 하고자 한다.

“오늘의 아동은 내일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은 내일의 세계가 오늘의 아동에게 달려 있다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 속에서 우리는 어린시절의 교육이 곧 성인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시기에 있어서 바른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다.(임연재, 1992)

특히 童蒙期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도덕성 발달과 가치관 정립과 바른 양심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송순, 1993) 즉 이 시기의 아동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교에 있어서 교육의 출발은 이보다 먼저 胎敎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태교의 중요성을 주자는 『小學』에서 열녀전을 인용하여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임신하면 잘때 옆으로 눕지 아니하고 앉을때 가에 눕지 아니하고, 앉을때 가에 앉지 아니하고, 설때 한쪽발로 서지 아니하며 간사한 맛을 먹지 아니하고, 벤 것이 바르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아니하며, 눈으로 간사한 빛을 보지 아니하고,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밤이면 소경 약사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고 올바른 일을 말하였다.」(『小學』「立敎篇」)고 하여 임부의 정신적, 육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밝히고 그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의 임부의 자세

는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一舉手 一透足以 바로 태아의 淸濁의 氣質과 知愚賢不肖의 지능형성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버이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忽慢히 해서는 아니되며 敬畏之心으로 操心해야 한다.”(한양선, 1983)

이처럼 과거 유교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도덕교육은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버이에게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실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兒童들의 敎育은 胎兒때부터 철저히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이를 가진 부모의 行實이 바로고 위의를 갖추게 되면 그 가르침 아래 자란 아이 또한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실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논리이다.

또 자식을 낳은 후에는 반드시 「너그럽고 누그러지고 인자하고 은혜롭고 온화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공경하고 삼가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이 되게 할지어다.」(『小學』「立敎篇」) 라고 하여 聖人 혹은 君子로 일컬어지는 도덕적인 인간을 스승으로 선정하여 도덕교육을 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요구는 동몽기의 아이들의 예절교육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어진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道德敎育은 어릴 때 始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어려서 가르치지 않다가 다 자라게 되면 그릇된 짓을 배우고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어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니—」(박재성, 『海東續小學』「立敎篇」) 아이가 차츰 사물의 이치를 알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小學』에서도 「그리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講讀하고 學習하는 것을 어렸을때 하게 하는 것은 그 습관이 지혜와 함께 자라고 敎化가 함께 이루어져서 도리에 어긋나 거역하거나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애려는 때문이다.」(『小學書題』) 라고 하여 어린시절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시절의 교육의 목적은 인격형성의 시기에 처해있는 동몽기의 아동들에게 좋은 습관과 태도를 형성시키자는 데 있었다.

2. 童蒙教材로서 小學 分析

가. 『小學』의 教育史的 位置

『小學』은 옛날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꾸민 것이다. 『小學』의 내외편6권은 南宋의 대유학자인 朱子가 孝宗 淳熙 14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그의 친구인 劉淸之의 원고를 가필하여 꾸민 것으로 알려져 있다. 劉淸之는 淳熙 10년에 『小學』의 編成을 끝내고 12년에 朱子에 의하여 篇과 券의 배치를 바꾸고 그 題詞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교육의 필독서로서 『小學』이 언제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小學』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기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유교를 국교로한 이조시대에 들어서면서 『小學』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학문의 기본서가 되었다.

『小學』이 학교교육의 필수과목으로 된 것은 太宗 7年 權勳의 상계에 의하여 권학사목이 정해지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정여기, 1980) 조선시대의 전반을 통하여 교육규범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勸學事目에서 權勳은 『小學』이 人倫 道德의 근본이라 하여 모든 교재 중에서 『小學』의 先講을 밝혔고, 나라에서도 이에 맞맞추어 생원시험이나 대학 입학자에게 필히 『小學』을 시험과목으로 부과함으로써 『小學』은 조선사회의 童蒙教材 및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必讀書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와같은 勸學事目에서 시작된 『小學』의 先講原則은 『小學』을 人倫과 修身의 本領으로 삼았고 『小學』은 어려서부터 貴賤이나 性의 區別이 없이 배우는 基本教材로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庶民이나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익힐 수 있게끔 彥解本이나 類書 등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小學』은 조선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는 예의규범교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며 동몽기 아동들의 교육교재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나. 『小學』의 構造分析

『小學』은 內外 2篇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內篇은 「立教」、「明倫」、「敬身」、「稽古」의 4券으로 이루어져

있고, 外篇은 「嘉言」과 「善行」의 2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의 凡例를 비롯하여 수양을 위한 格言과 忠臣, 孝子 등의 史籍을 모아 제작하였다. 내편에서는 「禮記」、「論語」등 經典을 인용하여 유교윤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外篇에서는 內篇에서 설명한 것을 中國 古代와 한나라 사람들의 언행으로 실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小學』은 총 386장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중 「內篇」이 총 214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外篇」은 172장이다. 따라서 「外篇」보다는 「內篇」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분류하여 볼 때 「立教篇」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본질과 그 중요성을 밝혔고, 「明倫篇」이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의 五倫에 대해 밝혔다. 「敬身篇」은 송나라 학자들의 敬身의 내용을 밝혀 이것이 明倫의 실행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밝힘으로서 『小學』의 본론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稽古篇」은 지나간 성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모아 그것을 증명하였으며, 「嘉言篇」은 중국고대와 한나라 이후 사람들의 아름다운 언행을 모은 것이며 「善行篇」은 주로 한나라 이후 사람들의 선행을 모은 사례중심으로 서술되어 짐으로서 앞의 「立教篇」、「明倫篇」、「敬身篇」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술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立教篇」、「明倫篇」、「敬身篇」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67장으로 전체 구성중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장은 이 세가지를 실증해 주는 자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禮의 本質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딱딱해지기 쉬운 교육과정을 이야기 중심의 서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다시 「立教篇」、「明倫篇」、「敬身篇」에 입각하여 分類하면 <표 2>와 같다. 이렇게 볼때 『小學』의 중심은 당연히 「立教篇」、「明倫篇」、「敬身篇」이라 볼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立教篇」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本質을 서술하고 있는 책의 序論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明倫篇」과 「敬身篇」이 中心內容이라 할 수 있다.

〈표 1〉 小學의 構造分析

내 용		장 의 수	소 계	비 율
立 教		13	13	3.4%
明 倫	父 子 之 親	39	108	28%
	君 臣 之 義	20		
	夫 婦 之 別	9		
	長 幼 之 序	20		
	朋 友 之 交	11		
	通 論	9		
敬 身	心 術 之 要	12	46	11.9%
	威 儀 之 則	21		
	衣 服 之 制	7		
	飲 食 之 節	6		
禮 古	立 教	4	47	12.2%
	明 倫	31		
	敬 身	9		
嘉 言	廣 立 教	14	91	23.6%
	廣 明 倫	41		
	廣 敬 身	36		
善 行	實 立 教	8	81	21%
	實 明 倫	45		
	實 敬 身	28		
計		386		100%

(『소학』의 교육내용 분석, 이명기, 1975).

〈표 2〉 小學 敬身篇의 構造分析

각 편의 구분	立 教	明 倫	敬 身	비 고
內篇 中의 本篇	13	108	46	통론 3장은 제외
禮 古 篇	4	31	9	
嘉 言 篇	14	41	36	
善 行 篇	8	45	28	
계	39 10.2%	225 58.7%	119 31.1%	386 100%

또 『小學』을 「立教篇」, 「明倫篇」, 「敬身篇」의 견지에서 綜合分析해보면 「明倫篇」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25장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敬身」이 119장으로 31.1%를 차지함으로써 「明倫篇」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明倫篇」이 五倫에 바탕하여 人間關係를 중심으로한 禮의 기본정신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져 있는 반면 「敬身篇」은 자신의 몸을 수신하는 측면에서의 서술로

이루어진 까닭이다. 이는 당연히 개개인의 修身을 중심으로한 禮儀之節 보다는 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예가 우선시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明倫篇」과 「敬身篇」은 『小學』의 중심내용으로서 다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말할나위 없다.

다. 『小學』의 內容分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小學』은 크게 立教篇, 明倫篇, 敬身篇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예의규범을 밝히고 있는 부분은 명륜과 경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明倫篇」과 「敬身篇」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지켜 온 도덕의 핵심은 三綱五倫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인 도덕규범의 범주에 속하는 三綱五倫은 人間의 가정, 사회, 국가 등 共同體에 있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5범주로 정립하고 있고 각 범주에 있어서 타당한 무상명령이다. (김영목, 1977) 三綱五倫은 특히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사회에서 강조한 것인바 삼강오륜의 윤리는 그 근본 목적이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향상 시키려함에 있었다.

『小學』의 「明倫篇」의 대강의 내용은 바로 이 三綱五倫의 정신이 바탕한다. 「明倫篇」의 대체적인 구성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父子之親에 관계된 내용 39장, 君臣之義에 관계된 내용 20장, 夫婦之別에 관계된 내용 9장, 長幼有序에 관계된 내용 20장, 朋友之交에 관계된 내용 11장, 通論 9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明倫篇」은 『禮記』 『論語』 『孔子』 『孟子』 『曾子』 『荀子』 등의 儒敎의 중심서적 및 聖賢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또는 德性을 정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내용의 배열에 있어서는 단연히 父子之親이 앞서있는데 이는 儒家에 있어서 孝가 禮의 根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기, 1985)

이처럼 「明倫篇」이 三綱五倫을 그 내용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면 「敬身篇」은 修身의 禮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敬身篇」의 중심내용은 心術之要, 威儀之則, 衣服

之制, 飲食之節로 구분되어지며 총 4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의 大綱을 보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볼때 心術之要是 恭敬之心, 謹身, 寡慾 (克己), 君子의 態度, 崇神 등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긴요한 덕목과 방법을 中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禮記, 丹書, 論語, 孔子, 曾子, 管仲의 가르침을 引用하여 마음가짐의 要諦를 설명하고 있다. 또 威儀之則은 구성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활습관에 관한 실천규범을 중시하고 있는데 몸가짐, 안색, 언어, 君子다운 기상을 강조하고 있다. 威儀之則은 대부분 『禮記』에서 인용되었고 『論語』와 『孟子』의 가르침에서 인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衣服之制는 年齡, 地位, 上士, 冠婚禮 등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어야 할 알맞은 옷차림과 검소한 옷차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으로 『禮記』 儀禮 『論語』 孔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飲食之節은 食事의 方法 衛生의 拂拭과 食事時의 禮節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禮記』를 중심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論語』와 『孟子』의 가르침도 포함된다.

3. 「敬身篇」의 童蒙期 禮節敎育의 내용

儒敎社會에 있어서는 敎育은 數와 문자학습을 다루기 보다는 인품형성교육, 예절교육으로 인간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품성을 지니도록하는 인륜교육이 敎育의 중심이었다. 이는 단적으로 전통사회에서의 아동교육은 지식교육, 기술교육이 아니라 도덕교육임을 의미한다. 이 말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난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자질을 이성이라 이르고 이성을 쫓는 것을 도의라 이르고 도의를 닦는 것을 敎育이라 이른다.” (『小學』 「立敎篇」)

또 楊文公은 그의 家訓에서 「어린이의 배움은 暗記하고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良知, 良能을 길러 주어야 하니 먼저 들려주는 말을 위주하여야 한다. (중략) 오래 마음에 젖어 있으면 德性이 자연히 우러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小學』 「廣立敎」) 이렇게 볼때 傳統社會에 있어서 敎育은 도덕심을 배우고 기르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敬身篇의 內容構成

내 용		관 련 된 장
心術之要(12)	恭敬之心	1, 2, 4
	謹愼	3, 5, 6, 7, 9
	君자의 態度	8, 10
	寡慾	1, 2, 11
	崇神(敬天)	12
威儀之則(21)	禮儀態度	1, 8, 13, 14, 17, 18, 20, 21
	謹愼	2, 4, 5, 19
	訪問	3, 7
	言語要領 및 注意	6, 9, 10, 11
	表情	4, 6, 8, 13, 16
	整理整頓(坐席)	12, 15
	居不容	
衣服之制(7)	冠喪禮시의 衣服	1, 2, 3, 4, 5, 6
	衣服 檢소한 착용	7
飲食之節(6)	食事の 禮法	1, 5
	食事시 君子接待	2
	食事衛生	3
	飲食不食	4, 6

(『소학』의 교육내용 분석, 이명기, 1985).

따라서 유교사회에 있어서 학문과 생활윤리는 별개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도는 반드시 人倫에 근본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들은 가르침은 小學의 灑掃應對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孝, 悌, 忠, 信의 道理를 닦고(중략) 그렇게 하면 한낱 시골사람으로도 聖人の 道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小學』 外篇 「善行」)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儒敎의 중심사상은 孔子와 孟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인륜사상이다. 儒敎가 조선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은 유교적 윤리규범을 축으로 統治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교의 사상은 간혹 지배자들의 통치윤리로 형식적 윤리규범을 통하여 피지배자들을 희생시키기도 하였고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 본말을 전도시키는 경우도 있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유교사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 정신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올바른 정

신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조선시대 유교를 중심으로 이끌어온 윤리사상의 핵심은 三綱五倫의 정신이다. 『小學』은 바로 이러한 三綱五倫의 정신에 입각하여 저술되어졌으며 조선시대 동몽기 아동들의 중심교재로서 유교적 도덕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절대적 공헌을 해왔다. 때문에 대유학자 栗谷은 그의 著書 『小學集解』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바르지 못하고 커서는 더욱 사치하여 마을에 좋은 풍속이 없어지고 세상에는 어진 인재가 없어서 이욕이 어지럽고 잡된 말들이 시끄러워졌으나 다행히 타고난 떳떳한 이 성품은 하늘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아니하며 자신이 옛날 들은 것을 수집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을 대부분 깨닫게 하노니 슬프다 아이들아 이 글을 공경히 배워라 이것은 늙은 나의 노망한 말이 아니라 오직 聖人の 가르침이다.」(『退溪全書』, 「小學集解」)라고 하여 三綱五倫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小學』을 동몽기 아동의 敎育書

로서 추천하였던 것이다.

비록 『小學』이 신분제사회의 윤리규범인 탓에 그 내용을 지금의 시기에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지만 『小學』이 담고 있는 기본정신을 우리의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小學』의 「敬身篇」을 중심으로 동몽기 아동의 예절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小學』의 敬身은 몸을 바루고 바르게 행동하는 규범으로써 「敬身篇」에서 다루고 있는 예절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心術之要, 威儀之則, 衣服之制, 飲食之節 등이다.

첫째, 明心術之要是 마음가짐의 요긴한 점으로써 『禮記』 「애문공편」을 인용하여 어린선비(蒙士)를 가르치는 뜻을 밝히고 있는바 「군자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나 제몸 공경함을 가장 중요시 한다. 제몸은 어버이에게서 돌아난 가지이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능히 제몸을 공경하지 못하면 이는 그 어버이를 상함이요, 그 어버이를 상함은 그 근본을 상하는 것이니, 그 근본이 상하면 가지는 따라서 시들어 없어진다.」 하여 군자가 제몸을 공경해야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본장에서는 주로 『禮記』의 「曲禮」 「樂記」 「但書」와 『論語』 등을 인용하여 게으름과 사욕을 이길 것과,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불경하지 말며, 생각을 엄연히 하고 말을 조용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또한 의심될 일을 자기로부터 결정하지 말며, 의문을 바르게 해주었더라도 자기의 총명함을 보이지 아니할 것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 것과, 마음이 공순하고 말의 충직·신실과 행실의 돈독함과 공경을 권면하고 있다.

또한 「군자에게는 아홉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불 때에는 밝기를, 들을 때에는 똑똑하기를,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모습은 공순하기를, 말할 때에는 충실하기를, 일할 때에는 공경하기를, 의심날 때에는 묻기를, 분할 때에는 환난이 있을 것을, 이득을 볼 때에는 의리를 생각한다」 하여 군자의 아홉가지 생각과 「군자로서 지켜야 할 귀중한 도가 세가지가 있으니, 몸을 움직임에는 거칠고 교만함을 멀리할 것

이요,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는 믿음직하게 할 것이며 말을 내는 데는 야비하고 어그러짐을 멀리할 것이다」 하여 세가지 道(용모·안색·언사)를 밝혔다.

또한 「예란 절차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남을 침해하고 업신여겨서는 아니되며 도를 잃어가면서 친압함을 좋아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니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善行이라 하는 것이다.」(『禮記』 「曲禮篇」) 「군자가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 않고, 편안히 살려고 하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면서도 말에는 삼가고 도덕이 있는 이에게 나아가 자기를 수정해가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孔子) 하여, 선행과 군자의 학문에 대해 밝히며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할 것을 마음가지는 道로써 밝히고 있다. 유교의 가장 지향하는 인간상은 군자였으며 어린이를 교육하는 방향은 이러한 이상적인 군자상을 형성하는 데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明威儀之則에서는 『예기』의 「冠義」 「曲禮」 「少儀」 「射儀」 등과 『論語』를 인용하여 위의를 갖추는 法을 밝히고 있다. 「대체로 사람됨 본질은 예의가 있음에서이다. 예의의 시초는 용모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안색을 정하게 하며 말을 공순하게 함에 있으니 용모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안색을 정제하게 하며 말을 공순하게 한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지는 것이다.」(『禮記』 「冠義」) 하였다.

본장에서는 특히 城에 올라, 남의 집에 들어갈 때, 堂에 오를 때, 방문할 때 위의 갖추는 법을 밝혔고, 용모, 발거동, 입거동, 말소리, 머리가짐, 숨소리, 안색, 시선두는 법, 앉고 서는 법을 밝혔다. 또한 수레 안에서, 향당, 종묘, 조정에서 위의 갖추는 법과 선비를 대하는 禮와 물건을 수수하는 禮를 밝혔다. 「少儀篇」에서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함부로 친압하거나, 헐뜯거나 회롱하지 말것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미리 예측하지 말 것을 주의 하고 있다.」 「빈그릇을 들더라도 가득찬 그릇을 들듯이 하며 빈 집에 들어가도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조심하라 하였다.」

明衣服之制에서 「남의 아들이 된 사람은 부모가 살아계시면 갓과 옷에 흰 단을 두르지 말아야하고, 서른살 안쪽에 부모를 잃은 사람은 갓과 옷에 채색

단을 두르지 말아야 한다.」(『禮記』「曲禮」)하여 복식의 법도를 밝히고 있으며 士冠禮 행하는 법도를 밝히며 당시의 복식관행을 밝히고 있다. 다만 「어린아이에게는 갓옷과 비단옷을 입지 말아야 하며, 신발에도 장식을 달지 말아야 한다.」(『禮記』「玉藻篇」) 「선비로서 道에 뜻을 두면서 허술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같이 道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사람이라」(孔子) 하여 아동이 의장을 갖추는데 있어서 儉素하기를 가르쳤다.

明飲食之節은 『禮記』의 「曲禮」 「少儀」 「樂記」와 『論語』를 인용하여 음식의 예절을 밝히고 있다. 주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배불리 먹지 않을 것과 밥술 뜨는 법, 국물마시는 법 등을 소상히 표현하고 있다. 「군자를 모시고 식사할 때는 먼저 밥 먹기 시작하여 뒤에 그쳐야 하거니와, 밥을 흘리지 말고 국물을 흘리지 말며, 밥을 작게 떠서 빨리 먹고, 자주 씹되 입 모양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少儀』)하여 군자 즉 어른을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 어른보다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하며 어른이 먹기를 끝난 뒤에야 자기도 그만 먹는 것이라 하였다.

음주의 예법에서는 1잔의 술을 드는데 손과 주인이 1백번씩 절을 하게 하여 온종일 마시어도 취할 수 없게 예법을 만들어 술에 의한 禍를 대비하게 하였다. 또한 먹기에만 급급한 사람은 남이 천하게 여기는 데 먹고 살기에 정신을 빼앗겨 큰 뜻을 기르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편 「稽古篇」 敬身章에서는 「伯夷는 눈으로 나쁜 빛을 보지 않았고,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다.」(『孟子』) 「子路는 한번 약속한 일을 묵혀두지 않았다.」(『論語』「顏淵篇」) 군자는 헤어진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옷을 처지에 맞게 입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재앙이라 하였다.(鄭의 子臧이 옷을 처지에 맞지않게 입었다가 재앙을 만난데) 또한 公父文伯이 모친이 대부의 어머니이면서 길쌈하심을 보고 근심하자 어머니가 탄식하며 왕후나 公·侯의 부인이라도 길쌈하는 제도가 있으며,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義없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여 근로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아들을 심히 걱정하였다.

즉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하여 지나친 사치나 비싼

옷을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입는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고 回의 청빈한 속에서 그낙을 그치지 않음을 仁者의 道로써 높이고 있다.

「廣敬身」章에서 「仁人이란 그 의리를 바로하고 이익을 피하지 아니하며 그 도리를 밝히고 그 공효를 헤아리지 아니한다.」(『童仲書』) 하여 어진일과 성현의 도리로써 마음 밝히는 일이며, 용모와 태도 갖추기, 깨으뜸을 경계하기를 가르치며, 진실로 몸과 마음을 가꾸기는 外物을 제약함이 속마음을 기르는 소이 된다하여 視箴·聽箴·言箴·動箴을 권고 하였다.

자신의 허물에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 관대하며 (『范忠宣公의 訓誡』), 선비가 글을 읽는 까닭은 마음을 밝혀 行하는 데 있다.(『顏氏家訓』) 하였으며, 글 읽는 순서로는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六經』 이라 하였다. 또한 가르쳐 인도함은 스승의 공이요, 행위의 지극함을 규제하고 경계하여 주는 것은 친구의 임무이나 결단하여 나가는 것은 자기가 힘써야 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남의 서적을 조심히 다루도록 (『顏氏家訓』)하며, 가르치는 道는 작은 것, 가까운 것을 전해주고 나서 큰 것, 먼 것을 가르친다.(『明道先生』)하여 유학의 親親而愛民과 같은 정신을 가르침의 道로써 하였다.

「實敬身」에 있어서 급한 말과 당황한 말을 보이지 않을 것과 몸가짐에 일정한 법칙으로 말을 조심하고 안색을 바로 가질 것이며, 몸이 편안한 것을 경계하였다. 사치하고 권세가 높고 빛나는 것이 外物과 같이 요사하므로 (『柳變의 家訓』) 물질적 욕망을 적게하고 맛나는 음식을 적게 취하며 (『呂正獻公』) 마음을 다하고 몸가지는 요령으로 성실을 권하고, 성실하기 위해 망녕된 말을 하지않을 것과 옷차림은 검소하고 깨끗하기를 권고하였다.(『司馬溫公』)

이처럼 『小學』의 「敬身篇」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예의범절을 일일이 소상하게 적고 있으며 이는 곧 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마음이 어긋나지 않을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4. 「敬身篇」에 나타난 童蒙期 예절교육의 현대적 의의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 적합한 문화가 있고 도덕과 윤리규범이 있는 바 이들 문화와 도덕윤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道德과 倫理는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그에 적합한 것으로 재정립되지 않으면 한 사회가 지니고 있던 道德規範은 단절되고 말며 그 결과 전통도덕의 위기현상이 초래되게 된다. 이와같은 점에서 볼때 우리 사회가 전통도덕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우리가 지켜온 전통도덕을 현대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통도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溫古而之新하는 자세로 우리가 지켜온 전통도덕을 우리 사회에 繼承하고 存續시키기에 합당한 도덕규범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도덕은 그 기본정신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도덕이요 윤리규범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도덕과 윤리는 그 體에 있어서만은 萬古不變의 것이다. (『정신문화연구원 교학부연찬실』, 1980)

「敬身篇」의 내용을 현대 아동교육 내용에 맞게 분류하면 1) 마음가짐 2) 행동가짐 3) 의식주생활 4) 대인관계 5) 공부하는 목적으로 5大別할 수 있다.

『小學』 「敬身」의 교육적 의미에 있어서 그 근본정신은 제 몸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상하지 않음에 있으므로 먼저 근본인 孝의 정신을 살리는데 두었다. 이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면 1)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게으름과 사욕을 이기는 것이요, 마음이 공순하고, 말이 충직, 신실하고, 행실이 돈독하도록 교육하였다. 이는 오늘날 아동교육에 있어서 사사물물에 대하여 신뢰감과 공경으로 대하는 태도를 길러주어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행동가짐에 있어서는 몸가짐과 안색이 바르고 정제되며, 빈 그릇이라도 가득찬 그릇을 들듯이 조심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 아동의 생활환경 속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도록 하

는데 의의있는 교육이 된다.

3)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는 의복은 다만 검소하나 깨끗이 하고, 상한 음식이나 지나친 음식을 먹지 않으며, 혼자 배불리 먹지 않도록 하였다. 즉, 균형있는 영양의 섭취와, 이웃과 함께 더불어사는 생활규범을 몸에 익히도록 가르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게으름과 편안함을 경계하고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함은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신변정리를 스스로하는 자율적 인간교육으로서 의의가 있다.

4)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성질과 도량이 관후하여 자신의 허물에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 관대하여 화목하기를 주의시켰다. 이는 매사에 자신에 대한 성찰을 위주로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태도의 교육에 의의가 있다.

5) 학문의 목적에 있어서 아동의 공부하는 까닭을 마음을 밝혀 행하는데 두며 출세하는데 두지 말도록 가르쳤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범람하는 현대에 있어서 교육의 본질적 의미가 입신출세에 있지 않고 참된 인간성을 길러내는데 있음을 잘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結 論

『小學』의 내용분석과 「敬身篇」의 내용과 현대적 의의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특히 아동기 예절교육의 방법론적 원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몽기 예절교육은 부모의 규범적인 言行, 스승의 선택과 벗의 사귀, 그리고 교육적 환경 조성 등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아동들에게 여러면으로 善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목표에 도달 하도록 했다.

「孔子께서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小學』, 「敬身篇」) 「孔子께서는 한가하게 거처하실 때에는 태도가 펴인 것 같으시고 안색이 온화한 것 같으셨다.」(『小學』, 「敬身篇」) 이와같이 『小學』의 「敬身篇」의 대부분은 聖인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들면서 성인을 모델로 하여 어린이들이 이를 본받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儒家의 교육은 知行의 一致 즉 실천을

겸행한 예절교육이라는 점이다. 모든 禮는 형식을 통하여 나타난다. 『小學』의 가르침 역시 실천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章에서는 言과 行動의 一致 그리고 말과 行動이 一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만약 입으로만 읽고서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몸소 실행하지 아니하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있을 것이니 무슨 이로움이 있으랴」(『擊蒙要訣』, 「讀書章」). 「말이 성실하고 미덥고 행실이 敦篤하고恭敬스러우면 비록 오랑캐 나라에서도 行하여 지거니와 말이 불성실하고 미덥지 못하고 행실이 篤實하고恭敬스럽지 못하면 비록 고향이라도 行하여 질 수 있으랴!」(『小學』, 「敬身篇」) 이처럼 禮節은 절도를 넘지 않고 침범하고 侮辱하지 않으며 몸을 닦고 말을 실천하는 것을 좋은 행실이라고 말한다.

셋째, 「敬身篇」에 나타난 또하나의 예절교육방법적 원리는 생활교육으로서의 原理라 할 수 있다. 「敬身篇」의 내용은 주로 마음을 가지는 法, 얼굴을 가지는 法, 말하는 法, 식사하는 法, 옷 입는 法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禮節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져 있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은 더불어 議論하기에 족하지 못하다. 대저 볼 때에는 얼굴보다 위로 올라가면 거만하고 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근심스럽고 고개를 기울이면 간사해 보인다. 다른 사람과 나란히 앉았을 때는 팔을 가로 뻗지 말아야 하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꿇어앉아서 주지 말아야 하며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서서 주지 말아야 한다」(『小學』, 「敬身篇」)

이와 같이 『小學』은 예의 근본이 마음을 닦는 데서부터 비롯되며 이는 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仁의 실현은 부모에게 孝하는 것이 첫째이며, 효의 근본은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을 바르게 공경하므로써 비롯된다고 仁의 실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模範의인 聖人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이를 다시 스스로의 실천을 통하여 체득하며 철저히 자신의 周邊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교육되었던 것이다. 즉 模倣의 原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教育의 원리에 의하여 아동기 예

절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특성은 천진무구함이며 환경에 물들기 쉬운 존재라는 점이다. 이는 어른들의 실천적 행동이 바로 모델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핵가족적 가정 분위기속에서 예절바른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행동가짐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시사해주고 있다.

道德의인 面에서 위험수위를 넘어 도덕부재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의 아동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전통교육은 너무나 소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조용하고 깊은 생명력을 지닌 힘과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힘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그 원칙은 오늘날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1) 教育大學 教職과 教材編纂委員會(편), 「兒童發達과 生活指導」, 教育出版社, 1972.
- 2) 교학부연찬실, 「傳統的 價値觀과 새 價値觀의 定立」, 「정신문화연구원」, 1980.
- 3) 김영우, 「現代韓國社會의 傳統道德의 危機」, 「教育學研究」, Vo. 28, 1990.
- 4) 김옥연, 「어린이 이해와 지도」, 학문사, 1982.
- 5) 김익수, 「儒家思想과 教育哲學」, 형설출판사, 1976.
- 6) 박일봉, 「小學」, 동양고전신서 8, 육문사, 1991.
- 7) 박재성, 「海東續小學」, 立教篇, 1989.
- 8) 서봉연, 이순형 공저, 「發達心理學(兒童發達)」, 중앙적성출판사, 1991.
- 9) 손인수, 「三綱五倫의 現代的 意義」, 「韓國教育 20年」, 教育出版社, 1969.
- 10) 송 순, 「現代家庭의 兒童教育」, 「정신개벽 12집」신룡교회, 1993.
- 11) 유안진, 「한국의 전통 육아 방식」,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12) 유짐숙, “朝鮮後期 童蒙教材의 內容分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13) 유효순, 「兒童發達」, 새유아교육총서, 1992.
- 14) 이재학 “韓國社會의 道德化를 위한 道德 教育的 處方” 「교육학연구」, Vo. 28, 1990.
- 15) 이명기, “小學의 教育內容 分析”, 「대전대학교 논문집」, 1985.
- 16) 이석재, “現代社會의 構造的 特徵과 道德的 危機”, 「교육학연구」, Vo. 28, 1990.
- 17) 이영석 편역, 「幼兒教育思想史」, 교육과학사, 1993.
- 18) 장경도, “東洋의 幼兒觀에 대한 比較研究”,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9) 정여기, “17世紀 書堂教育和 民族意識(교재 동몽선습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20) 退溪全書, 小學集解
- 21) 한기연, “栗谷 李耳의 教育理念”, 「교육학 연구」 12권 2호, 1974.
- 22) 한기연, 「韓國思想과 教育」, 일조각, 1980.
- 23) 한양선, “圓佛敎胎中教育에 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